

## Wendy L. Widder 박사, 다니엘, 세션 15,

### 다니엘 9:20-27, 70주에 대한 관점

© 2024 웬디 위더(Wendy Widd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이것은 15회기, 다니엘 9:20-27, 70주에 대한 관점입니다.

다니엘 9장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에서 하고 싶은 것은 70주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70주 해석과 관련된 문제, 또는 적어도 일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인의 관점에 따라 70주에 대한 관점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차트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차트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나간 단어를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70이레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그 단어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문제는 메시아 왕이라고도 불리는 이 첫 번째 기름부음받은 자의 정체입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John Walton의 구약 차트에 관한 책을 기반으로 한 차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약간 조작했지만 이것이 내가 사용하는 것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 번째 이슈는 62주를 읽는 방법이다.

여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 중 일부는 62개만 읽는지 아니면 7을 추가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둘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둘째 메시아, 곧 끊어질 자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언급하는 언약을 맺는 자가 누구인지, 즉 일주일 동안 언약을 맺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적어도 여러분을 위한 옵션을 식별하겠습니다. 그리고 70주차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70주차는 언제 끝나나요? 그 예언들은 언제 성취되니까? 우리가 논의하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은 일부 학자들이 70주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어. 그러나 여기에는 70주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보는 학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지만, 주가 끝나기 전에 결정되지 않은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 자체는 중간점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에게는 중간 지점이 있고 그 뒤에도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뛰어들어 봅시다. 제가 처음으로 살펴볼 견해는 마카베오 견해입니다. 이것은 때로 안티오키아 견해라고도 불린다.

이는 역사적 관점이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예언 전체가 성취되었다는 사상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나온 단어가 정확히 어떤 단어를 선택하려는지에 따라 605년 또는 586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예레미야의 말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이 모든 견해에 대한 최종 말이 아닙니다. 그들 각각에는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요점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차트를 논평에 가져가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변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 중 하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예레미야의 예언 중 하나입니다. 첫째로 기름부음받은 자는 유배에서 돌아온 것과 관련된 세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법령을 내린 고레스일 것이고, 아니면 스룹바벨일 것입니다. 나는 항상 스룹바벨의 철자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환 중 하나에 사람들과 동행 한 사람.

아니면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이사야서에서는 고레스를 야훼의 기름부음받은 자로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둘 다 기름부음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관찰은. 62주, 즉 62주 동안 다루는 기간이므로 여기에서 처음 7주가 끝나면 538-539에서 170까지입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490년이 아닙니다. 당신이 신경 쓴다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367년입니다.

이것은 키루스 시대부터 안티오코스 4세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기름부음받은 자, 즉 62이레 끝에 끊어진 두 번째 기름부음받은 자의 정체는 두 번째 성전 기간 동안 마지막 적법한 사독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입니다. 171년에 암살당한다.

성약을 맺으신 분, 제가 그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62주 후에는 기름부음받은 자가 끊어져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올 왕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멸하리라.

그것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루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종말은 홍수로 오리니, 마지막에는 전쟁이 있으리로다. 황폐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강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구문과 문법이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안티오코스 4세이며 배교하거나 배신한 유대인들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의 헬레니즘화를 강력히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70번째 이레, 70번째 이레의 사건에는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의 박해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오니아스 3세가 단절된 171년부터 마카베오 반란이 일어나 성전이 복원되는 164년까지 가 되는 셈이다.

나는 또한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몇몇 평론가들을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견해입니다.

Hermeneia 시리즈의 John Collins, Carol Newsome,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백히 복음주의적이지 않거나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논평은 이러한 관점을 가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기원전 2세기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를 견지하면서도 여기에는 모형론이 있다고 말하는 복음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사건들이 2세기에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지 부분적일 뿐이며, 이 패턴은 어떤 방식, 모양, 형태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나, John Goldingay, 내 생각엔 Heather Appel, Ernest Lucas)은 좀 더 유형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것들은 최초의 성취로 시작하지만 성서에서 계속되는 의미를 발견하고 역사 속으로 계속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로마적 견해입니다. 이것은 때로 역사적 메시아적 견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역사 속의 성취를 언급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이거나 역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사적이거나 역사적입니다. 혼란스러운 견해를 얻으십시오.

내가 붙인 메시아적 명칭은 기름부음받은 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예수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닉 라벨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기름부음받은 자 중 적어도 한 사람, 아마도 둘 다 예수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나간 말씀은 페르시아의 4대 법령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 왕들이 내린 네 가지 법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539년에 키루스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522년에 다리우스 1세가 후속 조치를 취했고, 그 다음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여기에 한 쌍을 두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성서 어딘가에 페르시아 법령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려고 나간 말씀에 대한 법령이 될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왕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이며, 또한 두 번째로 기름부음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하는 일은 62주에 7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69와 같은 하나의 단위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령에서 예수님의 삶의 어느 시점까지의 시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잘려진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며, 새 언약이 바로 이 견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주차는 로마의 성전 파괴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70이레의 모든 것은 로마인들이 성전을 파괴할 때, 즉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두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며 역사적입니다. 예수님이 기름부음받은 자 중 한 분이라는 점에서 메시아적입니다. 거기에 도달하려면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읽어야 합니다.

좋아요, 그게 그 관점이군요. 아, 일부 평론가들. 사실, 이 견해를 갖고 있는 주석가들은 그에 대한 적응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초기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중 한 사람은 아직 다가올 모형론적 성취를 봅니다. 따라서 Joyce Baldwin은 이 견해를 고수했지만 그녀는 이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이 성취되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입니다.

Young은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가 이를 수정하여 추가적인 성취를 보았는지 실제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이 시점까지 로마인의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이상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좋아요, 이것이 바로 로마인의 관점, 역사적인 메시아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취를 미래에 던지고 실제로 성취를 보지 못하는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한 성취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아직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초기 성취가 있다고 말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중 일부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초기 성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호가 있고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징적인 것부터 다루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변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나가는 단어는 키루스의 칙령이므로 기원전 539년입니다. 첫 번째 기름부음받은 자와 두 번째 기름부음받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추가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회시대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아는 동일 인물이지만 역사상 다른 지점입니다. 그것은 환란 기간 동안입니다. 차트에 이런 뷰가 있어서 어깨를 살짝 으쓱하고, 반복해서 봤어요.

나는 아직 이 견해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해설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으로 가는 해설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뉘앙스를 정확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트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언약을 맺은 자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이 견해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추측한다.

70번째 주간은 환란이고, 나머지 환란은 상징적입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상징적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의 예언적 말입니다. 그것은 597이나 4에 그의 말을 명시하고 있지만 아마도 둘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여기에 날짜가 두 개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두 가지 다른 예언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법령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중 어느 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글쎄, 그것은 그들이 수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490년을 일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의 시작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490년을 상당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든 수학이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법령 중 어느 것이 고려되고 예레미야의 예언 중 어느 것이 고려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략 490년에 도달하기 위해 수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나머지 부분에 미묘한 차이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정확히 49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학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상징적인 관점이 제가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름부음받은 자는 포로 생활과 관련된 키루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62주는 시간의 끝과 같이 고레스로부터 끝까지의 어떤 무한한 시간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무한한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성취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두 번째 기름부음받은 자는 실제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견해는 토마스 맥코미스키(Thomas McComiskey)가 주장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80년대 웨스트민스터 신학 저널(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에 다양한 견해와 그가 이런 길을 가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이 직관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다니엘서에서 이 인물이 묘사되는 방식은 실제로 맞는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언약을 맺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0주, 즉 70째 주는 환난입니다. 이들 관점 중 어느 쪽이 메시아주의적인가에 관해서는 이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기름부음받은 자이거나 기름부음받은 자 중 적어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적입니다. 이 견해는 종말론적이고 성취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는 기름부음받은 자 중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적이라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간격 관점에 도달합니다. Thomas McComiskey는 내가 아는 다니엘에 대한 논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의 기사에서 이러한 입장에 대한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다른 평론가를 모릅니다.

이 간격 관점, 나가는 말씀은 페르시아 왕의 칙령 중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아닥사스다의 칙령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Artaxerxes에는 400년대, 458 또는 445 Artaxerxes에 두 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기름부음받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보기에서는 62주에 7주를 더해 69주라는 하나의 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이 견해에는 예언적 연도에 대한 논의와 그것이 490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논평을 읽고 그들이 몇 년 동안 전통적인 해와 다른 기간을 주장한다면 그들이 예언적인 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으로 끝납니다. 잘려진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맺은 자는 적그리스도이다. 이것은 여기서 70주차에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 견해에서는 확실히 70주차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0주일은 환란입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세대주의적 견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논평은 이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는 Stephen Miller의 NAC 논평입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시리즈입니다. 실제로 Miller는 문제의 개요를 설명하고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데 능숙합니다. 나는 밀러의 경우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해설가입니다. 그는 훌륭한 해설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에 반영된 세대주의적 견해입니다.

이런 관점도 메시아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 기름부음받은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말론적이며 메시아적이다. 이것은 종말론적 비메시아적이다.

이것이 종말론적 메시아적이다. 둘 다 기술적으로 종말론적인 것은 아니지만, 두 칼럼 모두 미래 어딘가에서 모형론적 성취를 허용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70주에 관심이 있다면, 많은 읽을거리와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더해 제가 언급조차 하지 않은 몇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설자들은 각각에 대해 일종의 관점을 취하거나 어려운 구문, 모호함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맥락이 없는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퍼즐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양한 전통과 다양한 주석가, 다양한 학자들이 70주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내면적으로 가르치는 Dr. Wendy Whitter입니다.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이것은 15회기, 다니엘 9:20-27, 70주에 대한 관점입니다.